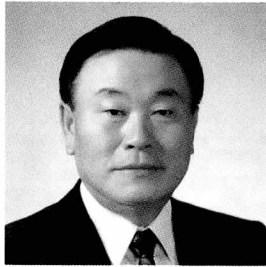


멀티미디어 시대 방향제시



남 궁 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 일 많은 때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을 맡게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동안 열과 성을 다해 당협회의 위상을 한차원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신 전임 정장호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통신 업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수퍼하이웨이 정책과 각국의 초고속 통신망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통신의 민영화, 개방화의 물결이 가시화 되었으며, 국내적으로도 이러한 외풍

의 영향을 받아 부처기능이 통합되어 정보통신부가 탄생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새로 발족한 정보통신부의 명실상부한 정책자문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전임 정장호 회장님의 공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가. 금년초 여러 신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멀티미디어 시대의 도래』였습니다.

1995년이 바로 멀티미디어 시대의 원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멀티미디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어떤 신문은 CATV를, 어떤 신문은 PC통신을, 어떤 신문은 위성방송을, 또 어떤 신문은 CD-ROM을 멀티미디어 시대의 전령처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멀티미디어 시대의 종합적인 얼굴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우화처럼 어떤 한가지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멀티미디어라고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멀티미디어가 별안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문명의 이기가 그 모습과 기능을 변형시켜가며 더욱 더 편리하게 접근해 오리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TV는 이제 더이상 전통적인 TV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프로를 시청하던 전통적인 기능에서, CATV가 보내주는 프로,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프로, DB에서 보내주는 정보, 교육용 S/W를 재생시켜보는 기능, 게임기가 수행하던 재미있는 놀이 등을 모두 해낼 수 있는 TV로 그 기능이 추가 확대될 것입니다. TV의 PC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가능하겠지요. 즉 PC의 TV화, 통신기기의 멀티모

드화, 유무선의 통합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멀티미디어의 시대는 이렇게 올 것입니다. 그 기술이 누구의 것이던 필연적으로 멀티미디어의 인프라스트락처는 지구상에 구축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멀티미디어의 인프라스트락처를 타고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 멀티미디어는 멀티채널이기도 하지요. 멀티채널을 통해서 외부의 문화가 소나기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외국문화의 소나기를 흠뻑 맞기만 할 것인가. 우리도 문화를 만들어 하늘로 쏘아 올릴 것인가. 이것이 과제인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멀티미디어 시대를 구축하는 경쟁과 멀티미디어 인프라스트락처를 이용해서 우리의 문화를 하늘로 쏘아 올리는 2가지 역할에 대하여 노심초사 해야 할 시기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이 그것을 깨닫고, 정부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닦아 새벽을 알리듯 당협회가 그 방향을 알리는 노력을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

우리에게는 지금 멀티미디어 시대를 구축하는 경쟁과 멀티미디어 인프라스트락처를 이용해서 우리의 문화를 하늘로 쏘아 올리는 2가지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